

대부업 이용 줄었지만 중신용자 비중 늘어

최고 금리 인하에 등록업체·거래자수 모두 감소

대출심사 강화 4~6등급 이용자 1년새 1.2%p ↑

은행권 기준 4~6등급 중금급 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 비중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등급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은 14조 6000억원으로 2016년 6월말(14조 4000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반면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지난 지난해 3월 34.9%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2월 267만9000명이었던 거래자 수는 16년 6월에는 263만명이었으며 동년 12월에는 250만명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자들이 신규고객보다 기존고객 위주로 영업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일부가 저축은행으로 이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대부업체 등록업체 수 또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8654개로 같은해 6월 대비 3.6% 감소했다.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를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326개가 줄었다.

이에 따른 건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서 저신용자는 줄고 중신용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6.7%로 2015년 말보다 1.2%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23.3%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내린 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간간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거래자 신용등급을 보면 4~6등급 이용자의 비중은 23.3%로 1년 전(22.1%)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이용 비중은

2 P2P대출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실시간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법상 대부업 대출로 분류되는데, 대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고 서류접수 등이 간편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47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은 9901억원에 달했다.

2014년 21.6%, 2015년 22.1%였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도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처럼 중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늘어난 데는 P2P대출의 증가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P2P대출업체들이 '최저금리보상제' 등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P2P대출이 인기를 끌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P2P대출의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3106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배 넘게(220.5%) 늘었다. 사실상 P2P대출 잔액 증가(+2137억원)가 지난해 하반기 전체 대부업의 대부규모 증가세(+2500억원)를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P2P대출 거래자 수도 상반기보다 2배 넘게(116.6%) 늘어난 663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P2P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위도 P2P대출업체들에 대한 제도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신용자들의 채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지자체 대부업자로 등록된 상태지만,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P2P대출업체를 별도로 구분하고 P2P대출업체들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P2P대출업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7.81 (-0.54)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1)

↑ 코스닥 663.79 (+2.25) ↑ 환율 (USD) 1157.40원 (+6.90)

전남 5월 어업생산량 11% 증가

전국 생산량 70% 점유...천해양식 전년대비 44% 늘어

지난 5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천해양식어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전남도 어업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면 총 어업생산량은 16만4988t으로 전년 동월 14만8714t보다 10.9%(1만6274t)가 증가했다.

이는 천해양식어업이 15만4252t으로 전년 동월대비 44.3%(1만4772t)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9973t으로 전

년 동월대비 16.8%(1437t) 증가했다.

5월 전남도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 24만6619t의 66.9%를 점유했으며, 천해양식업은 전국 생산량 19만907t의 80.8%에 달했다.

일반해면어업 중 멸치가 남장망 및 자망어업의 조업 호전으로 어획량이 346t 증가했고, 갈치는 산란장으로 이동하는 어군 형성으로 238t이 늘어났다. 반면 아귀와 삼치류는 각각 152t, 149t 감소했다.

천해양식어업에서는 톳과 다시마류가 각각 9959t, 4766t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수입차 1위 탈환

6월 수입차 등록 전달보다 22.6% 증가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BMW를 제치고 3개월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벤츠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 남짓 늘었다.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GM·르노삼성·쌍용)의 내수 판매가 4% 뒷걸음질한 것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2만3775대로 5월보다 22.6% 늘었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6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해소와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5월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6월 판매 실적(등록 대수)을 보면, 벤츠가 가장 많은 7783대를 팔았다. 2위 비엠더블유(BMW·5510대)보다 2200여 대나 많은 규모다.

3~10위 브랜드와 판매량은 ▲ 혼다 1750대 ▲ 렉서스 1272대 ▲ 포드 1173대 ▲ 랜드로버 962대 ▲ 토요타 892대 ▲ 미니 841대 ▲ 볼보 693대 ▲ 크라이슬러 648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최신 실속정보 제공

캠코, 12일 광주광역시 '공매투자 아카데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언)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공매투자 아카데미는 부동산 투자 실무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온비드 고객을 비롯하여 공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공매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온비드 공

매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법과 이용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백석대학교 박병섭 교수의 '실전 부동산 공매투자' 특강을 통해 공매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언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매투자 아카데미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방법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공매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231-3010. /김대성기자bigkim@

하반기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은행 대출태도전망지수 -14

올해 3분기(7~9월)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과 세종, 경기·부산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2분기(-11)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 조사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계부문의 기업보다 강화 정도가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차주별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23으로 2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졌고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13으로 6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업대출 태도가 강화되지만 경

기 회복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대 등으로 그 정도는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신용카드사를 제외하고는 대출에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2로 2분기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상호금융조합(-35)과 생명보험회사(-14)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신용카드회사 전망치는 6으로 대

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KT '갤럭시노트FE' 판매

KT는 7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를 출시, 전국 KT매장 및 공식 온라인 채널 KT 올레샵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갤럭시노트FE는 블루 코랄,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 블랙 옉닉스 4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 69만9600원이다. <KT 제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H. 010-3605-5000